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2014, 김진운 역)

프레임 · 성경의 필요성

존 프레임 『성경론』(김진운 역, P&R Korea·CLC 2014), 4부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가', 30장 '성경의 필요성'(바로 다음이 31장이므로 30장으로 보임), 약 331–338쪽

🧭 흐름 한눈에

프레임은 성경의 속성을 두 묶음으로 나눈다. 앞 묶음은 성경이 본래 어떤 책인지를, 이 장부터 시작하는 둘째 묶음(필요성·포괄성·충족성)은 성경이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다룬다. 그는 먼저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이라는 논리 개념으로 세 속성의 관계를 설명한다. 이어 필요성의 근거를 세 겹으로 쌓는다. 첫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말하듯 자연과 역사만으로는 구원의 지식을 얻을 수 없다. 둘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언약'은 본래 말로 맺어지는 관계다. 셋째, 구원 자체가 복음이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온다. 그래서 “성경 없이는 주님도, 그리스도도, 구원도 없다.”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현대 자유주의 신학을 비판한다. 그리고 아타나시우스와 루터의 개혁을 본보기로 삼아, 오늘의 개혁 과제는 “성경은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이라는 고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 절별 정리

📜 1. 둘째 묶음의 속성: 필요성·포괄성·충족성

프레임은 앞 장들에서 능력·권위·명료성을 다뤘다. 이 셋은 성경이 '본질적으로 지닌' 속성이었다. 이제부터 다룰 둘째 묶음은 성경이 우리 삶에서 맡는 역할, 곧 성경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다룬다. 그는 논리학의 구분을 빌려 온다. 'A가 B의 필요조건'이라는 말은 A 없이는 B도 없다는 뜻이다. 'A가 B의 충분조건'이라는 말은 A가 있으면 B도 반드시 있다는 뜻이다. 이 틀을 성경에 대면 이렇게 된다. 성경을

영역에 필요하고 충분하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세 속성을 자신의 관점주의 틀에 맞춘다. 필요성은 '마땅히 그래야 함'을 담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권위(규범적 관점)에 해당한다. 포괄성은 하나님이 섭리로 성경을 삶의 모든 영역과 연결하신다는 뜻이므로 하나님의 다스림(상황적 관점)에 해당한다. 충족성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충만한 만족이므로 하나님의 임재(실존적 관점)에 해당한다. 다만 프레임은 이 배열이 자기 틀을 “약간 확장한” 것이라고 스스로 인정한다.

1. 첫째 묶음은 성경 자체, 둘째 묶음은 우리 삶
2. 필요조건: 이것 없이는 저것도 없다
3. 충분조건: 이것이 있으면 저것도 있다
4. 포괄성: 삶의 모든 영역에 해당된다
5. 필요=권위, 포괄=다스림, 충족=임재

장절	이 구절의 역할
(이 절에서는 구절 인용 없음)	개념 정리와 틀 설명에 집중한 단락

📜 2.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성경이 필요하다'는 말은 아주 단순하다. 우리에게 성경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광야에서 사탄은 굶주린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바꿔 보라고 조롱했다. 예수님은 신명기 8:3을 인용해 답하셨다. 사람은 떡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다. 사람에게 음식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보다 훨씬 더 필요하다. 넓은 뜻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포함한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나 프레임은 신명기 8:3과 마태복음 4:4이 그런 넓은 뜻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곧 성경을 가리킨다고 짚는다. 각주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말씀이라고 하신 점에 주목한다. 이 표현은 성경 일부가 아니라 성경 전체가 우리의 영적 양식으로 필요하다는 뜻이다. 프레임은 이것이 '완전 영감'과 '전체 성경으로'(tota Scriptura)라는 생각의 뿌리라고 말한다.

3. 신명기 8:3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말한다

4. '모든 말씀', 곧 성경 전부가 양식이다

장절	이 구절의 역할
마태복음 4:4 >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이 떡보다 근본적이라고 답하신 장면
신명기 8:3 >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인용하신 원래 구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필요성을 말함
창세기 1장 > [1]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6]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심
시편 33:6, 9 > **시편 33:6** >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 **시편 33:9** > 그가 말씀하시매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시매 견고히 섰도다	하늘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창조의 증언
요한복음 1:3 >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신약의 증언
시편 147:15-18 > [15]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16]눈을 양털 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 같이 흩으시며 [17]우박을 떡 부스러기 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18]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시즉 물이 흐르느도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 자연을 다스리심 (보존)

장절	이 구절의 역할
히브리서 1:3 >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들이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심(보존)

📜 3.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항: 다른 계시로는 부족하다

프레임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항 전문을 인용한다. 신앙고백서의 논지는 이렇다. 자연의 빛과 창조·섭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보여 준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구원에 필요한 지식을 얻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때에 여러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그리고 진리를 더 잘 보존하고 퍼뜨리기 위해, 또 육신의 부패와 사탄과 세상의 악의에 맞서 교회를 굳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해, 그 계시를 모두 기록하게 하셨다. 신앙고백서는 이것이 성경을 '가장 필수적인 것'으로 만든다고 말한다. 또 과거에 하나님이 뜻을 계시하시던 방식은 이제 끝났다고 덧붙인다. 프레임은 신앙고백서가 '다른 계시의 불충분성'을 근거로 성경의 필요성을 세운다고 요약한다. 그러고 나서 한 가지 근거를 더 보탠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관계, 곧 '언약' 때문에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1. 자연은 변명 못 하게 할 만큼은 보여 준다
2. 그러나 구원의 지식에는 모자라다
3. 보존·전파·보호를 위해 계시가 기록되었다
4. 프레임은 '언약'이라는 근거를 더 보탠다

장절	이 구절의 역할
(저자가 이 절에서 직접 인용한 구절 없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항을 인용해 고전적 근거를 제시

프레임의 고유한 논증이 여기서 시작된다. 그는 앞에서(2장, 24장) 언약을 주인과 종(봉신)의 관계로 설명했고, 이 관계의 특징을 하나님의 다스림·권위·임재로 정리했다.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은 종에게 말씀하시며 관계의 내용을 정하신다. 그 말씀은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과 같은 짜임을 갖는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밝히시고, 이전에 베푸신 구원과 은혜를 말씀하신다(역사적 서언). 지켜야 할 법을 주시고(조항), 경고와 약속을 덧붙이시며(제재), 언약을 시행하는 규정까지 주신다. 그러므로 언약은 무엇보다 말로 이루어진 관계다. 성경은 실제로 '말씀을 듣는 것'과 '언약을 지키는 것'을 같은 뜻으로 나란히 쓴다. 십계명을 '언약의 말씀'이라 부르고, 신명기 4:13은 십계명을 아예 언약 그 자체로 부른다. 말씀을 어기는 것은 곧 언약을 깨뜨리는 것이다. 프레임의 결론은 분명하다. 기록된 언약이 없다면 언약도 없고, 언약의 주님도 없다.

1. 언약은 주인과 종의 관계다
2. 하나님이 말씀으로 관계를 정하신다
3. 조약의 짜임: 이름·역사·법·제재·규정
4. 말씀 순종이 곧 언약 준수다
5. 기록된 언약이 없으면 언약의 주님도 없다

장절	이 구절의 역할
출애굽기 19:5 >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말을 잘 듣고”와 “내 언약을 지키면”이 나란히 쓰임
신명기 33:9 >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말씀을 지키는 것과 언약을 지키는 것이 나란히 쓰임
시편 89:34 >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언약과 하나님 입술의 말씀이 짝을 이룸
출애굽기 34:28 >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사십 일 사십 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언약의 말씀'이라 부름

장절	이 구절의 역할
열왕기하 23:3 >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요시야가 '언약의 말씀'을 지키기로 서약함
역대상 16:15 >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 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언약을 '명하신 말씀'과 나란히 기억하라고 함
역대하 34:31 >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요시야의 언약 갱신.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서약
신명기 9:9, 11 > **신명기 9:9** > 그 때에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사십 주 사십 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 **신명기 9:11** > 사십 주 사십 야를 지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돌판 곧 언약의 두 돌판을 주시고	십계명 돌판을 '언약의 돌판'이라 부름
신명기 4:13 >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십계명이 곧 언약 자체라고 말하는 핵심 구절
열왕기상 8:21 > 내가 또 그 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돌판이 든 궤를 '언약'이 있는 궤로 부름
역대하 6:11 > 내가 또 그 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열왕기상 8:21과 같은 표현
레위기 26:15 >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을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라 부름

“언약은 다른 무엇보다도 언어적 관계임을 보게 된다.”

📜 5. 성경 없이는 그리스도도 없다

신약에서도 같은 원리가 이어진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거듭 말씀하신다.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그분의 말씀이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이 된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영생의 말씀은 주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그분을 “주여” 부를 수는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 책을 쓰지 않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의 언약 관계를 생각할 때 사도와 제자들이 쓴 신약성경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 프레임은 흔한 태도 하나를 지적한다.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는 강조하면서, 그 관계에서 성경이 맡는 역할은 흐릿하게 두는 태도다. 그는 그리스도와 그 백성의 관계도 언약 관계이므로 무엇보다 말로 맺어진 관계라고 답한다. 오늘날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만 있다. 따라서 예수님과 언약 관계를 맺으려면 성경을 그분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각주에서는 이 문장의 파장을 짧게 분석한 글이 부록 N에 있다고 알린다.

1. 주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2. 순종 없이 “주여”라고 부를 수 없다
3. 예수님은 책을 쓰지 않으셨다
4.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만 있다
5. 인격적 관계도 결국 말씀의 관계다

장절	이 구절의 역할
요한복음 14:15, 21, 23 **요한복음 14: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21**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로 묶임

장절	이 구절의 역할
>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5:7, 10 > **요한복음 15:7** >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 **요한복음 15:10** >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연결됨
요한일서 2:3 >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증거
요한일서 5:3 >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요한이서 1:6 >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
마가복음 8:38 >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곧 주님을 부끄러워하는 것
요한복음 12:48 >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주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 심판의 기준이 됨
요한복음 6:68 >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는 베드로의 고백. 말씀의 절대적 필요

장절	이 구절의 역할
21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4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	부를 수 없음. 반석 위의 집 비유

“성경이 없이는 주님도 없다. 성경이 없이는 그리스도도 없다.”

📜 6. 성경 없이는 구원도 없다

구원은 하나님이 언약의 주로서 자기 백성을 건지시려고 개입하시는 일이다. 가장 깊은 뜻에서 죄로부터의 구원은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과 부활의 결과다. 그러나 구원은 말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 구원을 알게 되고,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복음이 없으면 구원의 가능성도 없다. 프레임은 여기에 이유를 덧붙인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사람의 지혜로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사람의 보고만으로는 그 사건의 의미를 알 수 없다. 구속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나왔고, 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찾을 수 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약속도 마찬가지다. 사람이 한 약속이라면 희망 사항으로 흘려들어도 그만이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구원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듯이 사람의 지혜로도 얻을 수 없다. 고린도전서 2장은 복음이 하나님의 숨겨진 지혜이며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로 전해진다고 말한다. 그런 말씀은 성경에만 근거를 둘 수 있다.

1. 구원의 근거는 십자가와 부활이다
2. 그러나 구원은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온다

4. 사람의 약속은 희망 사항일 뿐이다

5. 성령이 가르치신 말씀은 성경에 있다

장절	이 구절의 역할
로마서 10:17 >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구원이 말씀으로 온다는 핵심 근거
고린도전서 1:19 >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십자가의 메시지가 지혜로운 자의 지혜를 멸함
고린도전서 1:20 >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심
고린도전서 2:6-13 > 6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7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8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9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10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	복음은 사람이 볼 수도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지혜이며, 성령이 보이시고 가르치신 말로 전해짐
고린도전서 2:13 >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복음은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로

📜 7. 자유주의 신학이 잃어버린 것

이 단락부터 소제목 '1. 개혁을 위한 제안'이 시작된다. 프레임은 3–7장에서 이미 다룬 내용을 다시 꺼낸다.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대체로 성경이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이라는 가르침을 버렸다. 그 이유는 성경을 하나님의 인격적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사람이 스스로 기준이 되는 '자율성'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아무 말씀도 받지 못한 신자는 하나님이 정말 자기에게 말씀하신다는 확신을 잃는다. 예수님의 구원도 수많은 인간 이론 가운데 하나처럼 믿게 된다. 프레임은 이렇게 묻는다. 신학 학위가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용서하시는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다고 왜 믿어야 하는가? 그 질문은 너무 크고 사람의 마음은 너무 좁다. 고대 문화도, 종교사도, 철학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길을 알려 줄 지혜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 그 길을 알려 주실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지혜를 받으려면 그 지혜는 말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의 가능성을 거절하는 순간, 자유주의 신학은 스스로 파산을 인정하는 셈이다.

1. 자유주의는 '인격적 말씀'을 버렸다
2. 이유는 자율성을 지키려는 데 있다
3. 결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확신을 잃는다
4. 구원이 인간 이론 가운데 하나가 된다
5. 하나님의 지혜는 말로 와야 한다

장절	이 구절의 역할
(이 단락에서는 새 구절 인용 없음)	앞 절의 고린도전서 1–2장 논리를 자유주의 비판에 그대로 적용

> “그런 신적 말씀의 가능성을 거절함으로써 현대 자유주의 신학은 전적 파산을 인정한다.” (번역서 인용 한도 때문에, 위 두 문장 가운데 하나만 쓰도록 선택 가능)

📜 8. 개혁을 위한 제안: 아타나시우스와 루터처럼

프레임은 지난 약 3세기 동안 자유주의가 질병처럼 교회를 갉아먹었다고 진단한다. 그래서 이제는 개혁할 때라고 말하고, 이를 일깨울 목소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기를 기도한다. 다만 먼저 농담 섞인 경계를 둔다. 젊은 신학자들은 자기를 '개혁의 기수'로 그리기를 좋아한다. 어릴 때 경찰과 도둑 놀이를 하던 사람이 이제는 루터와 교황 놀이를 하려 한다는 것이다. 프레임은 오늘날 '개혁'이라는 말이 엉성한 생각과 거친 말과 교회 분열의 핑계가 되기 쉽다고 꼬집는다. 그래도 그는 묻는다. 하나님이 오늘 정말 개혁을 하신다면 무엇이 그 대상이겠는가? 그는 교회사의 큰 개혁 두 번을 본보기로 든다. 첫째는 4세기다. 교회는 성경과 그리스 철학을 섞은 종합(특히 오리겐이 발전시킨 것)에서 벗어나 삼위일체를 더 분명히 이해하게 되었다. 아타나시우스에게 중요한 것은 철학적 기교가 아니라 예배와 구원이었다. 아들이 완전한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셈이고,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에게 구원을 맡기는 셈이다. 둘째는 루터다. 루터는 성상·성인·성물을 섬기는 로마 교회의 예배를 우상숭배로 보았다. 또 로마 교회의 칭의론은 신자를 자기 공로에 기대게 만든다고 보았다. 두 개혁의 처방은 같은 모양이다. 아타나시우스는 아들이 완전히 하나님이심을 인정했고, 루터는 칭의가 완전히 하나님의 일임을 인정했다. 프레임의 제안은 오늘 그 다음 자리를 채우는 것이다. 구원의 메시지가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복음은 사람 지혜의 산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와 사람의 말로 분명히 전달된 것이다.

1. '개혁'을 자처하는 구호는 경계해야 한다
2. 아타나시우스: 아들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3. 루터: 칭의는 완전히 하나님의 일이다
4. 오늘의 과제: 복음은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다
5. 개혁의 초점은 인격적 말씀인 성경이다

장절	이 구절의 역할
(이 절에서는 구절 인용 없음)	교회사 비교로 제안을 뒷받침함

타락 이후에 필요해진 치료책이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성경의 필요성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도, 구원받을 수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을 수도 없다는 가르침.

포괄성
성경이 신앙의 일부 영역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과 관계된다는 가르침. 31장에서 자세히 다룬다.

충족성
성경이 신앙과 삶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자람 없이 담고 있어서,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는 가르침.

필요조건·충분조건
'이것 없이는 저것도 없다'가 필요조건이고, '이것이 있으면 저것도 반드시 있다'가 충분조건이다.

관점주의(규범·상황·실존)
같은 진리를 하나님의 권위(규범), 하나님의 다스림(상황), 하나님의 임재(실존)라는 세 각도에서 보는 프레임의 방법.

언약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자기 백성과 말씀으로 맺으시는 관계. 다스림·권위·임재가 그 특징이다.

종주권 조약
고대 근동에서 큰 왕(종주)이 작은 나라 왕(봉신)과 맺던 조약. 왕의 이름, 지난 은혜,

완전 영감
성경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숨결로 쓰였다는 가르침.

전체 성경으로(tota Scriptura)·오직 성경(sola Scriptura)
앞의 것은 성경 전체를 받아야 한다는 말이고, 뒤의 것은 성경만이 최종 권위라는 말이다. 둘은 흔히 함께 쓰인다(32장).

자율성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이성과 판단을 최종 기준으로 삼으려는 태도.

🔗 다른 책과 닿는 곳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성경의 필요성이란, 성경을 신뢰하지 않고는 영적인 삶이 없다는 뜻이다.
- 자연 계시만으로는 구원의 지식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고전적 근거다.
- 언약은 말로 맺어진 관계다. 그래서 기록된 말씀 없이는 언약의 주님도,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없다.
- 구원은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하지만, 성령이 가르치신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온다.
- 오늘의 개혁 과제는 복음과 성경이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다시 인정하는 것이다.

🎬 이 장을 쓰는 편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프레임 『성경론』(P&R Korea·CLC), B. B. 워필드 『성경의 영감과 권위』(CLC), 헤르만 바빙크 『개혁파 교의학』(새물결플러스)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7)와 존 오웬의 논고(1659)는 공유 저작물로 우리 번역입니다.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 기준입니다. youtube.com/@빛다방